

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국민일보 4월 2일자 보도(가판)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□ 국민일보는 4.2일 「‘금융복합기업집단’ 서 빠진 네카토(네이버·카카오·토스), 요건 확대해 지정 추진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“금융당국이 카카오, 네이버, 비바리퍼블리카(토스) 등 국내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묶기 위해 지정업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.”

○ “그동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카카오페이,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까지 규제업종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규율방향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배수암 (02-2100-2833)
	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	책임자	실 장	김국년 (02-3145-8200)
		담당자	팀 장	장항필 (02-3145-8210)

